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15:1-2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내용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사도 바울은 전한 내용이며 초대교회가 받은 내용이고 그들이 그 가운데 선 내용이었다. 복음은 시대마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했고 초대교회가 받은 확정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했다.

3-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사도 바울 자신도 받은 내용이었다. 그는 갈라디아서 1:11-12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고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들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였다. 그것은 그의 죽음이 속죄적 죽음이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代贖)하신 죽음이였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증거된 바이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예표되었고 예언되었었다. 인류 초기로부터 증거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들과, 율법에 계시된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죽음을 잘 예언하였다.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 장사지낸 바 되셨다는 말은 그의 확실한 죽음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은 그의 몸의 회생(回生)을 포함하지만, 단지 이전의 몸의 회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회생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이었다. 시편 16:10에서 다윗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다윗은 죽어 그 몸이 썩었으나 메시아께서는 죽어 무덤에 묻히시나 그 몸이 썩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부활하실 것이다.

호세아 6:2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예언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증표로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하였다고 보인다. 메시아께서는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 암시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었다.

사도행전 1:3,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고전 15:1-22)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5-8의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임을 증거하였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여섯 부류의 증인들을 열거한다. 첫째는 게바 즉 베드로이었다. 둘째는 열두 제자들이었다. 그 열둘에는 가롯 유다 대신 맛디아가 첨가되었을 것이다. 셋째는 500여 형제들이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것은 환각현상이 아니었다. 바울은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말했다. 넷째는 야고보이었고, 다섯째는 모든 사도이었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그 목록에 두었다. 그는 다메섹 성에 들어가는 길에서 영광 중에 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없었다. 지어낸 이야기는 많은 증인들이 있을 수 없다. 그 많은 증인들 중에 하나라도 양심을 따라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확증

12-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증한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은 참으로 허무한 세상일 것이고 세상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들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100년간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40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고 죽는 모든 자의 영광스런 부활의 시작이요 첫 열매이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소망을 보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

14-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들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거짓말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것일 것이다.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속죄인데, 그것도 헛것이 되며 예수님 믿고 죄사함 얻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거짓말로 판명될 것이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순교의 피로 인친 그들의 증언들을 인해,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들의 증언들이 사복음서이며 사도행전이며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 장이며 신약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다.

제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하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의 사도들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것은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의 소식이다. 이 복음의 중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삼일 만의 그의 부활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증인들이 증거한 확실한 사건이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확증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인생은 허무한 존재일 것이다. 사람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고 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과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고 보장하신다. 그 보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의 제자들은 거짓 증인들이 되었을 것이며 기독교는 지어낸 헛된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왜냐면 기독교는 고상한 철학이나 윤리를 전한 종교가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삼일 만의 부활을 전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다.